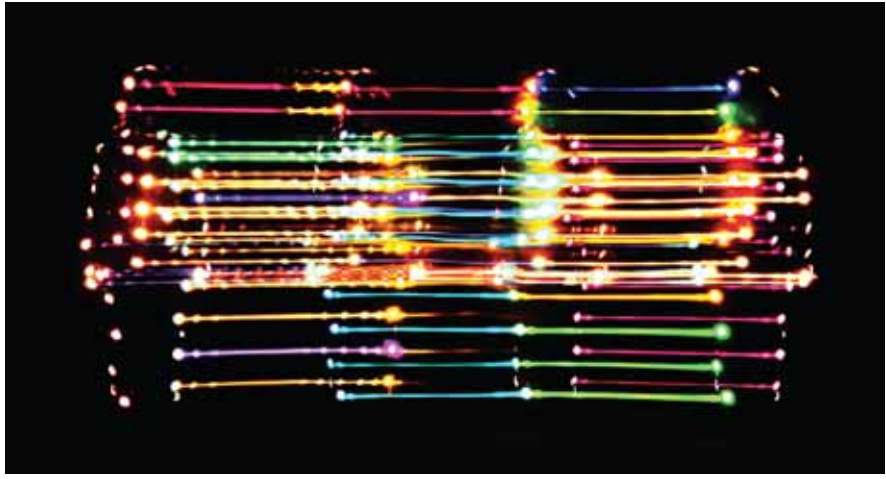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중앙 무대에서 논다



'흐름' (Flow)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40)씨가 상업 갤러리를 통해 중앙 화단에 본격 진출한다.

지역 작가로는 드물게 국내 유명 상업 갤러리 전속 작가로 활동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이는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상품성이 있는 '블루칩 작가'에 대한 냉혹한 시장 평가도 기다리고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진씨는 26일 서울 진화랑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4일 'Digital Humanity - 뜨거운 미디어'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연다.

내년 1월 10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는 진씨의 상업화랑 데뷔 무대로 전속 작가로서의 첫번째 초대전이기도 하다.

진씨는 광주시립미술관, 신세계갤러리, 무등현대미술관 등에서 12차례의 개인전을 가졌지만 상업 갤러리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씨는 이번 전시에서 디지털 기술에 공존하는 인간적인 휴머니티를 드러내 보인다는 계획으로, 자신의 대표작인 '흐름' (Flow) 시리즈, 전통 소재인 나전칠기를 영상에 활용하거나 태양의 움직임을 LED

로 표현한 '물결' (Wave), 운주사를 미디어 영상과 결합한 작품 등을 총 망라해 선보이고 컬렉터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 1972년 10월 개관, 올해로 40년을 맞은 진화랑은 한류 화랑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랑스 피아(FIAC)에 참가하는 등 국내 미술계 1세대를 이끈 대표적 화랑이다.

진씨는 전시와 함께 1년간 럭셔리 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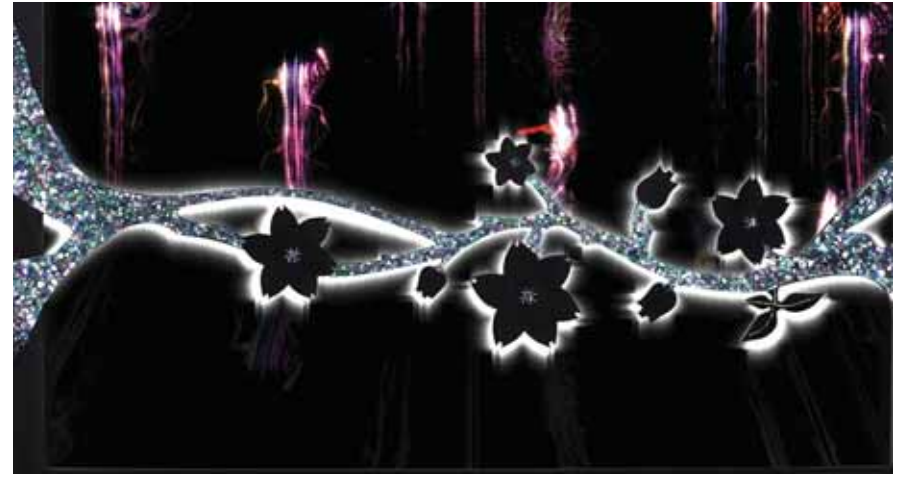
브랜드 루이비통의 협업작가로 발탁된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 점 그림으로 세계적인 화가 된 이우환씨, 황주리, 하동철씨 등과 같은 진화랑 전속 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전속작가의 경우 지원 방침이 작가별, 화랑별로 틀리지만 대체로 개인전 등 전시를

상업갤러리 서울 진화랑과 전속 계약... 지역 미술계 긍정적 평가

'뜨거운 미디어' 주제로 내달 4일부터 초대전... '블루칩 작가' 관심

열어주고 전시 프로모션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극심한 미술 시장 침체에 컬렉터들의 수준이 높아져 전속 작가 선정이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가뜰



'흐름' (Flow)

나 열악한 지역 미술 시장과 작가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 작가들에겐 '꿈'이나 다

상업갤러리 서울 진화랑과 전속 계약... 지역 미술계 긍정적 평가

'뜨거운 미디어' 주제로 내달 4일부터 초대전... '블루칩 작가' 관심

를 없다. 이 때문에 진씨가 전속 작가로 계약을 맺고 중앙 화단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데 대해 지역 미술계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적

지 않다. 특히 진화랑이 질 높은 컬렉터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해외아트페어에 진씨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적극 알리는 등 대표 작가로 키울 것으로 알려져 지역 '블루칩 작가'로 성장할 수 있을 지 미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진시영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대학원을 거쳐 뉴욕 프랫 대학원에서 영상을 전공했으며 하정웅 청년작가상, 광주시미술상을 수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는 겨울, 유신의 망령을 출산하느냐"

홍성담 '출산' 선관위 수사 의뢰... "제발로 출두하지 않을 것"

민중미술 1세대 작가인 홍성담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또 하나의 과격적인 '출산 1' 작품을 올렸다. 이 작품도 최근 논란이 됐던 '골든타임-다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자에게 거수경례하다' 못지 않다. '출산 1' 은 한 여성의 성기를 뿜고 뱀 몸통을 가진 별 두개 달린 군모와 선글라스를 쓴 박 전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홍씨의 '출산 1' 그림과 관련, "서울시선관위가 홍씨가 블로그에 이른바 '박정희 뱀 그림'을 올린 것이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및 그의 직계 존속을 비방할 혐의가 있어 서울선관위가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의뢰) 소식을 들었다"면서 "검찰이 조사를 위해 오라고 통보할 텐데 강제 구인이라면 몰라도 내 발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제발 고소했으면 한다"면서 "그래야 법정에서 박정희가 한 행위를 자

하게 말할 것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홍씨는 또 작품 밑에 "세상의 모든 출산은 성스럽다. 세상의 모든 탄생은 거룩하다. 올겨울 대한민국은 유신 독재의 망령을 출산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

홍씨는 "이번 작품은 오는 겨울 징그러운 유신의 망령을 출산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은 풍자화"로 "그림 속 여성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아울러 "골든타임"을 놓고 "성스러운 출산을 비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풍자화를 놓고 여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반박한 뒤 "다양한 출산의 개념을 나타내는 100개의 작품을 블로그에 올리겠다"고 했다. "이미 17점은 만들었고 모든 작품이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 전시할테다"고도 했다.

홍씨는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광주·전남에서 지역문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중미술의 1세대 작가로, 광주의 아픔을 '5월 관화'에 새겨 세상에 알렸던 작가이기도 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피아노 위에 펼쳐지는 바흐 음악

광주피아노아카데미,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피아노로 듣는 바흐의 음악.'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김선자)가 바흐가 작곡한 건반악기 협주곡들을 들려주는 음악회를 마련했다. 27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목표 시립교향악단원들로 구성된 아카데미 챔버 오케스트라(지휘 진윤일)와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레퍼



김선자



문현옥

토리는 '한 대의 건반악기를 위한 협주곡 작품번호 1054, 1056', '두 대의 건반 악기를 위한 협주곡 작품번호 10160' 등이다.

출연자는 김선자·문현옥·함지연·박제희·조현영·박지현·이영아·이연주씨 등 11명이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라이파이' 김산호선생 초청 강연

광주문화재단,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한국 SF문학의 원조로 꼽히는 '라이파이'의 작가 만화가 김산호(사진) 선생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원로초청 특별강연' 세번째 강사로 김씨를 초청, 29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강연을 갖는다.

'민중사로 보는 한국역사'를 주제로 강연하는 김씨는 토종 SF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라이파이' 시리즈를 비롯, '모비딕' '차돌장군' 등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또한 김씨는 '대추신 제국사' 등 대중 역사서를 '회화극본'(정통 회화 기법에 만화 형식을 빌려 역사적 상황을 재현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글로 기술한 독특한 저술 양식) 형식으로 출간하는 등 한민족 고대사를 재정립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 문의 062-670-74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서울 무대에

작품 'Wish to fly 2012' 30일 세종문화회관

지난 2010년 이어진씨가 새로운 지휘자로 영입되면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순히 노래를 나열하고 울음을 곁들이던 기존의 정기 공연과는 전혀 다른 무대를 선보여왔다.

'Wish to fly', '알을 품은 도시' 등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빼다 삼아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래를 선곡하고, 영상과 조명, 소품 등 다양한 장치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확 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소년소녀합창단이 'Wish to fly 2012'라는 작품으로 서울 공연에 나선다. 오는 30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광주산(産) 작품이 서울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가능해 보는 무대이기도 하다.

'Wish to fly 2012'의 테마는 '희망'과 '힐

링'이다. 새로운 세상에 호기심을 느끼며 꿈에 부풀어 있는 한 꼬마와 고난의 세월을 지나며 지쳐 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되며 작품이 전개된다.

스토리를 이어가는 노래는 '아름다운 사랑', '즐거운 나의 집', '겨울의 꿈', '5월의 노래', '얼굴', '오래도록 고맙도록' 등이다. 각기 다른 세대가 화합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자는 피날레 장면에서 관객들에게 마지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곡은 '이리랑'과 '광주는 꽃'이다.

총연출과 지휘는 이어진씨가 맡았으며 음악감독으로는 이씨와 함께 호흡을 맞춰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던 세계 합창올림픽 '연출이 있는 민요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던 김성광씨가 참여했다. 문의 062-529-11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무궁화호 무박 2일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 · 김유정문학촌 · 소양댐 기차여행

남이섬 은 "겨울연가", "우리결혼했어요"등등 여러 방송 촬영지로 내외국인에게 알려져 있는 곳이며, 매년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김유정생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문학 작가인 "김유정 선생"의 생가로 외양간, 디딜방앗간, 전시관 등으로 문화공간이다. 또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동양최대의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을 관광하게 되며, 춘천의 유명한 음식으로 알려진 춘천 먹거리등등 관광하게된다.

출발일 12월 24일 23시50분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70,000원
 소인 55,000원
포함사항 왕복무궁화호 열차비, 현지 차량비, 남이섬입장료, 여행자보험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